

2019년 사업평가

들어가는 말

사회운동의 자기 평가가 양팔 저울의 한쪽 접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을 놓고 다른 쪽 접시에 수행한 일을 놓는 일에 그치기는 어렵다. 이는 사회운동이 예측할 수 없는 계기들로 이루어진 시간의 흐름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힘들(이)이 교차하는 정치적, 사회적 별자리 속에 놓여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흐름과 관계 속에 자기의식과 수행을 놓은 변증법적이고 전략적인 시선을 가져야 한다.

일 년 전 우리는 진지전 혹은 "제도를 통한 장정"을 활동의 형태로 하고, 사회 제도와 사회운동에 기본소득 의제를 확산하는 것과 주요한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기본소득 의제로 개입한다는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으며,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 우리 네트워크 자체의 본연의 활동을 활기차게 수행해야 한다는 사업 기초를 제출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괴롭혀 온 역량의 부족에 대한 인식 속에서 몇 가지 사업, 즉 연합학술대회, 경기 기본소득포럼(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유사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개입, 온오프라인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를 둘러싼 정세는 예상한 대로 착잡했다. 선거법 개혁과 검찰 개혁으로 대표되는 정치 개혁의 흐름은 우스꽝스러운 결론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은 '가장 긴 날'의 전투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게릴라전과 대중 동원이 함께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를 뒷전으로 밀려나게 했다. 역시 한국 정치는 '소용돌이의 정치'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 속에서 경제적 개혁 과제는 뒤로 밀린 정도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나 노동 시간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 등 후퇴하게 된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포용적 성장"이 실질적인 효과와 상관없이 담론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충분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실시되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기본소득의 제도적 실현의 첫 발을 떼는 역사적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다. 꼭 이 덕분만은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네트워크 이외에 기본소득을 의제로 삼는 연구 정책 집단이 출현하기도 하고, 현직에 있거나 장래를 준비하는 정치가들이 기본소득 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까지 기본소득 정치의 경험을 볼 때 이런 관심과 지지가 곧바로 기본소득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인 우리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지만, 말 그대로 그만큼의 진전이 있다고는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리면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 네트워크의 위상은 분명 크게 올라갔고, 구성원 개개인

의 활동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왕성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교육, 자문, 연구 용역 등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와 활동이 우리 네트워크가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경우 네트워크는 후광의 역할을 했고, 구성원 개개인은 프리랜서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고 정치 변동에서 우리 네트워크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관점과 조직적 활동 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 속에서 우리 네트워크가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이에 적합한 조직적 활동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2019년 평가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간대에 놓을 필요가 있다. 이때 장기적 시간대는 다시 세 개의 시간대로 나뉜다: 10년, 5년, 3년.

10년의 시간은 말 그대로 오늘날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있게 한 분투의 나날이었다. 기본소득이 터무니없다는 의미에서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과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고, 담론의 수준에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5년 사이에 네트워크는 회원 조직으로의 전환, 지역네트워크의 건설 확대, 단체 회원 가입 등의 조직적 변화를 겪었고, 또 이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을 의제로 하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펼치고자 했다.

마지막 3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국내외적으로 기본소득 의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네트워크는 기본소득 연구, 교육, 정책 개발 등의 중심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9년 사업 수행의 대차대조

이런 역사 속에서 2019년에 네트워크와 그 구성원은 집단적,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다.

연구, 교육: 월례 세미나, 계간 <기본소득>, 초청 세미나, 경기도 교육, 다양한 강연, 기고

외부 연구와 행사 참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연구 용역(기본소득 효과 분석, 공론화, 농민기본소득 등등),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청년수당 논의, 부산복지개발원 연구 용역,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연구 용역

행사: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공동주관, 비엔 대회 참가,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공동주최

특별 행사: 10주년 기념행사

홍보: 웹소식지, 기본소득 가이드북 발간, (계간 <기본소득> 발간)

캠페인: 세계 여성의 날, 노동절, 기본소득 행진

하지만 2019년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 가운데 다음을 이행하지 못했다.

교육: 온라인 기본소득 학교, 기본소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캠페인: 기본소득 입법 운동, 네트워킹 파티

홍보: 기본소득 굿즈와 2019년 활동 브로슈어 제작

조직 사업: 법인화 사업, 단체회원과의 공동 사업

주요 사업 평가

1. 연구교육 사업

연구교육 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라 하면 계간 <기본소득>의 창간이라 할 수 있다. 학술 저널이 아니라 대중적인 잡지로 기획된 계간 <기본소득>은 1차적으로 네트워크가 집단적, 조직적으로 설정한 의제를 알리는 연단이자 기본소득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후 우리 네트워크가 기본소득 운동의 네트워크로서만이 아니라 기본소득 정치의 기관이 되고자 할 때 계간 <기본소득>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연구교육 사업으로 설정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와 ‘기본소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월례 세미나는 하반기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운영위원회의 학습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온라인 기본소득학교와 기본소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이에 참여할 구성원들이 다른 일로 너무 바빴던 것과 현재의 사무국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동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의 개별 구성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외부 연구 용역과 자문을 많이 수행했으며, 외부 교육과 강연 또한 마찬가지로였다.

이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에서 기본소득 의제의 상황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위상 사이의 불일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 연구와 교육에서 많은 것을 했으나 네트워크로 축적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가 기본소득 실현의 흐름 속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획 강연도 몇몇 지역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것 이외에는 충분히 실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두 가지 한계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대중적인 수준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설정하지 못했다는 것과 설사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조직적인 수준에서 실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2. 국내외 교류 사업

국내외 교류 사업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BIEN 뉴스 교류 사업이며, 완전히 하지 못한 것은 ‘기본소득 입법 운동’과 네트워킹 파티이다. BIEN 뉴스 교류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순전히 역량 부족 때문이며, ‘입법 운동’을 하지 못한 것은 상황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트워킹 파티의 경우 2018년에 계기가 맞아 이루어진 일이라 보아야 하며, 정기적인 사업으로 배치하는 게 무리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교류 사업 가운데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과도 적지 않았던 것은 연합학술대회, 즉 ‘한국 기본소득 포럼’이었다. ‘한국 기본소득 포럼’은 국내에서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주창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한 자리에 모아 기본소득 운동과 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자리로 설정되었고, 이에 맞는 구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 자체로 제법 규모 있게 진행되었다. 또한 2018년과 달리 일찍부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이 행사도 네트워크 사무국 역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 단체와 개인을 한 자리에 모은 행사였기 때문에 내용상 네트워크의 주도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이후 행사 기획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았다.

경기도가 주최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경기연구원 등과 공동주관한 것은 기본소득 운동에서 네트워크의 위상을 보여주는 일이자 국제적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일종의 파트너십으로 일하는 것은 두 가지 난점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선 이런 파트너십은 사회운동이 현실 정치로 가는 하나의 채널이며, 이럴 때 이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제도화와 속류화가 발생한다. 이는 물론 고유한 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난점 자체가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동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파트너 사이의 양적 차이가 가져오는 불일치인데, 이는 정규군과 민병대가 합동 작전을 벌일 때 보일 수 있는 양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유한 난점이라고 할 수 없고, 현실적인 딜레마 상황을 낳는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고유의 리듬과 역량에 따른 활동을 방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 기본소득 정책 자문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 기본소득의 도입을 비롯해서 기본소득 의제를 확대, 확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할 정도의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했다. 이는 필요하기도 했고, 불가피하기도 한 일이라 볼 수 있지만, 이후에는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홍보 사업

기본소득굿즈와 2019년 활동 브로슈어 제작 사업은 이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서 연구교육 사업에서 언급한 계간 <기본소득>의 창간과 기본소득 가이드북 발간은 우리 네트워크 활동에 이정표가 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둘 모두 우리 네트워크 같은 사회운동 단체가 수행해야 할 두 가지 과제 연구 및 정책 개발과 대중 운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오랫동안 꾸준히 발간해 온 <뉴스 레터>는 여전히 적절한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도 가장 기본적인 것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간 <기본소득>의 발간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매체의 위상, 관계, 양적 추구 등을 계측하는 일이 필요하다.

4. 조직 사업

2019년은 네트워크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였고, “한 끼의 식사와 함께하는 10년의 기억”이라는 이름의 기념식을 했다. 행사 자체는 따뜻했지만 조출했다. 하지만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10년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나아갈 길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지역네트워크의 사업은 저마다 다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거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네트워크부터 작은 규모에서나마 꾸준히 활동을 한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막 창립한 네트워크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에서 기본소득 의제로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 매우 까다로운 일이라는 것과 현재의 지역 네트워크의 양적 규모 또한 이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고, 네트워크 전체 차원에서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하는 한편 지역네트워크에서는 소규모라도 꾸준히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게 중요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오는 말

창립 10주년이 되는 2019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만큼의 아쉬움과 그 이상의 곤란함을 느낀 해이기도 하다.

과거와 비교할 때 조직의 규모, 내용은 연구 성과, 수행한 사회적 활동 등은 엄청나게 변화한 것이었다.

게다가 기본소득 의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 속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위상 또한 커지고 중요해졌다.

하지만 기본소득 의제가 확산되는 속도와 정치적 변동의 폭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양적으로는 더 많은 회원과 연구자, 활동가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질적으로는 기본소득 의제의 현실화 그리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평가가 잘 수행되고, 다시 이것이 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2019년 사업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다.

[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사업평가

I. 2019년 사업 보고

조직 내실화 사업

1) 조직화 목표

- ① 회비 미납회원 중 10명 회비 납부 회원으로 만들기
- ② 신규 가입회원 10명 만들기

2) 구체적 사업

- ① 월 1회 <회원의 날> 개최
- ② 7월부터 월 1회 거리 캠페인 실시
- ③ 2개 이상의 <기본소득> 공부모임 조직 및 운영

》》》 2019년 운영 실제

1) 조직화 목표

① 미납회원 중 회비 납부 회원이 된 회원 수: 매달 경미한 ±는 있으나 고정적인 미납회원이 납부 회원으로 전환하지는 않음.

- ② 회원 증감 정도: + 4명(탈퇴: 4명, 가입: 8명)

- 참고) 2019년 3월 기준: 회원 70명 / 2019년 12월 기준 회원: 74명

2) 구체적 사업

- ① <회원의 날> 개최: 2회 진행

- 4/28(일) 오후 4시, 모카네 농장(목○○ 회원 운영 게스트 하우스)
- 6/16(일) 오후 2시, 도레미 아구찜(정○○ 회원 운영 식당)

- ② 7월부터 월 1회 거리 캠페인 실시: 4회 진행

- 8/17(토) 오후 3시, 으능정이 거리
- 9/29(일) 오후 4시, 계룡문고 부근
- 11/18(월) 오후 12시, 한남대 후문
- 12/14(토) 오후 12시, 충남대 정문

- ③ 2개 이상의 <기본소득> 공부모임 조직 및 운영: 공부모임 2개 운영

- 지족동 모임: 4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진행
- 금비 모임: 4월(2회), 5월(4회), 6월(4회), 7월 진행

▶ 평가

- 미납회원의 납부회원으로의 전환은 2019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장기적인 미납회원이라 2019년 납부회원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음.

- ‘회원의 날’ 행사는 2회 개최로 계획보다 많이 축소되었으며, 회원 참여도도 높지 않았음.

-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서 회원들의 활동 및 참여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었음.

- ‘거리 캠페인’ 때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접근 방법으로 ‘거리 캠페인’을 기획할 필요성을 확인함.

- 상근자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회원 대상 활동이 진행되지는 못했으며, 회원의 상황을 고려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기본소득 의제 확산

1) 구체적 사업

① 6월, 9월, 12월 대중강연 진행

㉠ 양적 목표: 매 강의마다 참가자 30명 및 신규 회원 가입 5명

② 기본소득 설명회 진행

㉠ 양적 목표: 10회 진행

③ 지역서점과 협업하는 기본소득 도서전

》》》 2019년 운영 실제

1) 구체적 사업

① 대중강연 진행: 3회 진행

- 6/13(목) 오전 10시, 모퉁이 도서관, 오준호 강사

- 7/20(토) 저녁 7시, <임산부> 먼저 기본소득> 좌담회, 지족동 사무실

- 9/26(목) 저녁 7시, 계룡문고, 김찬휘 강사

② 기본소득 설명회 진행: 7회 진행

- 5/8(목), 대전마을도서관 협의회, 이○○ 운영위원

- 7/29(월), 대전시민대학, 이○○ 운영위원

- 10/10(목), 모퉁이도서관, <19회 세계 기본소득대회> 참가 보고대회 형식,

김○○ 운영위원, 목○○ 회원

- 10/18(금), ‘벤엘의 집’ 20주년 기념 세미나

김○○ 운영위원, 이○○ 운영위원(이○○ 운영위원은 대전기본소득당 창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 10/21(월), 꾸러기 어린이 도서관, 이○○ 운영위원

- 11/8(금), 대전 아이쿱, 이○○ 운영위원

- 11/18(월), 한남대 경제학과 <기본소득> 특강, 김○○ 운영위원

③ 지역서점과 협업하는 기본소득 도서전: 6월 모퉁이 도서관, 9월 계룡문고

▶ 평가

- 대중 강연 이후 회원 가입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 강연회 이외에 이○○ 운영위원의 ‘오마이뉴스’ 기사, SNS 활동 등이 <기본소득 의제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됨
- 연초 계획을 충실히 실행한 면에서 긍정적인 활동이었음
- 지역 서점 및 어린이도서관과 함께 진행한 사업을 높게 평가하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벤엘의 집’과의 연대 사업도 긍정적이었음. 2019년 사업을 바탕으로 각종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는 <기본소득> 설명회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현재의 역량으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었다고 판단함

3. 회원 참여 활동 확장

1) 구체적 사업

- ① 회원의 집 현판 달기
- ② 차량용 자석 제작

》》》 2019년 운영 실제

1) 구체적 사업

- ① 회원의 집 현판 달기: 1개 회원의 집에 현판을 달.
- ② 차량용 자석 제작: 차량용 자석을 제작하였으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가정용 자석으로 제작 배포함.

▶ 평가

- ‘회원의 집 현판 달기’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의미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회원 참여 독려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II. 2019년 사업 평가

- 상근자를 배치하지는 못하였으나, 대표 및 운영위원 체계를 이루어 안정적인 활동을 진행한 부분이 긍정적이었음.
- 경기도나 전라남도 해남처럼 구체적인 지자체 차원은 아니어도, 대전 지역에 <기본소득>을 대중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었음.
- 다소 침체되어 있었던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활동력을 복원하는 2019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사업평가

I. 2019년 사업

1. 기본소득 캠페인

- 메이데이, 인천지역 행사/문화제 등 기본소득 홍보부스를 차리고 캠페인 진행
- 인천사람연대, 활동보조노조, 자원활동가 대회 등 기본소득 책자 배포 및 홍보부스 운영
- 염전골마을축제 등 지역행사에서 기본소득 홍보 부스 운영
- 기본소득 현수막 게시: 시기에 맞춰 20개 게시

2. 기본소득 강좌 등 외부사업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본소득 토론회 참가(4회)
-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기본소득 강연(4회)

3. 기본소득 학교

- 인천대, 인하대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학교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준비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함.
- 대신 청년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회 기본소득 강의 진행

4. 회원모임

- 2회 진행.

II. 2019년 평가

-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캠페인 등을 소화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임.
- 타계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원 및 준비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함. 청년 지지자, 회원들을 넓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기본소득 캠페인(홍보 부스 운영 및 현수막) 등에 있어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은 많았지만 기존의 홍보방식을 답습함.

- 다만,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기본소득의 관심은 높아졌음. 강의요청 및 토론회 등 지역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최함.

[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사업평가

I. 2019년 주요 사업

- 기본소득 학교: 2018년 하반기부터 진행해온 '기본소득 학교'를 3월 19일 진행 후 마무리함.
- 기본소득 읽기모임 '쉽표': 2019년 8월 ~ 11월까지 진행함. 마지막주 수요일 저녁에 기본소득 관련 글들을 읽는 읽기모임을 꾸준히 진행함. 참가자가 적더라도 진행하였음.
- 기본소득 공모전: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전 사업을 진행함. 100만원, 50만원 분야로 1팀씩 선정하였으며, 100만원 분야는 기본소득 실험 및 세미나, 50만원 분야는 기본소득 보드게임에 지원하였음.
- 기본소득 강연 사업: 기본소득과 연관된 주제로 특강을 진행함. 5월 13일 공유부와 플랫폼 자본주의(강사: 김찬휘), 9월 21일 플랫폼 노동과 기본소득(강사: 박정훈) 두 차례 진행함.

II. 사업 평가

1. 전반적인 평가

2019년 사업의 주요한 기조는 현재의 운영위원회의 역량 상태에 기초하여, 역량이 많이 소모되는 기획사업보다는 일상적인 회원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었음.

위 기조는 전반적으로 준수되었으며, 매월 진행하는 정기사업을 기복없이 진행하는 데 방점을 두었음.

현재 활동 회원 신규 유입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 인물 유입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조직사업 방안이 필요하다.

쉽표 읽기모임의 친목을 강화하거나, 사업 편성을 유연하게 하여 적극적인 확장을 고민해야함.

2020년 기조는 활동회원을 발굴하고 조직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함.

2. 주요 사업 평가

쉽표 읽기모임: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진행했던 '기본소득 학교' 사업과 2019년 8월부터 진행한 '기본소득 읽기모임 쉽표'를 참가자 수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진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단, 모임 참가자 수를 늘리고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특강:

김찬휘 강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24명 참가, 1명 회원가입의 성과를 냄. 홍보에 많은 공을 들였기에

가능했음.

박정훈 강연: 참여가 저조했다. 홍보에 공을 적게 들였고, 워크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홍보가 되어 비회원들의 참여에 제약이 있었을 수 있음.

공모전: 공모전 과정에서 전주에서 인문학 모임 활동을 하는 그룹과의 네트워킹이 생겼음. 전북넷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던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

[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사업평가

I. 2019년도 사업

- 가. 강연사업: 〈젠더와 노동〉 (안숙영 교수), 30여명 참여
- 나.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II. 2019년도 평가

- 가. 2019년도 초반 회원확장을 목표로 했으나, 회원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함
- 나. 2019년도 중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였으나, 개최하지 못함.
- 다. 2020년도에는 조직을 정비하여,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할 필요.

[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사업평가

I. 회원 및 조직운영

- 회원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회원 모임을 공지를 해도 잘 모이지 못한다.
- 회원 대부분이 후원회비 내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다.
- 운영위를 회의를 제대로 열지 못했다.

<개선 방향>

- 캠페인 등, 사업을 통해 회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
- 기본소득 공부모임을 통해 회원들을 모이고,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 현재의 운영위원들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II. 사업 운영

- 부산민주시민교육박람회, 부산인권문화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등의 행사에서 부스 운영(부스 운영에 관한 사업을 소수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함).
- 기본소득 강연(부산에서 기본소득 강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혼자하고 있음).

<개선 방향>

- 기본소득을 알리는 캠페인을 정기적이고 진행해야 한다.
-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영역별로 나누어서 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한다.
- 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기본소득을 알려낸다.

<총평>

- 소수의 회원들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하지 못했다(운영위원 2명 다른 지역으로 이사 등).
- 실무를 함께 할 회원이 없었다(운영위원장이 모든 준비를 하고 행사시간에 결합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기본소득을 알리려는 홍보(캠페인, 세미나 등)에 미흡했다.
- 2019년 사업계획에 충실하지 못하였다.

[참고: 지역네트워크 사업평가]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사업평가

1. 활동목표

-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출범
- 기본소득운동 확산

2. 일정보고

일시	내 용
2019. 09. 05.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출범식
2019. 10. 26.	2019 국제기본소득 행진 참여
2019. 10. 29.	기본소득강연기획단 구성 및 1차회의
2019. 11. 05.	기본소득강연기획단 2차회의
2019. 11. 20.	기본소득집담회
2019. 11. 23.	2019 한국 기본소득 포럼 참여
2019. 11. 26.	기본소득강연회(오준호작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2019. 12. 11.	기본소득 집담회 및 강연회 평가 / 후속논의 (연대모임, 기본소득 실험)

3. 주요사업

- 1) 출범식 (13명 참여): 임원선출, 규약제정
- 2) 2019년 국제기본소득행진 (15명 참여)
- 3) 2019 한국 기본소득 포럼 (2명 참여)
- 4) 집담회 (35명 참여)
 - 일시: 11월 20일 오후 7시
 - 장소: 민주노총충북본부
 - 발표주제: 녹색기본소득, 예술가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장애인기본소득, 기본소득실험
 - 집담회 평가 및 후속작업 방향
 1. 주제를 좁히는 소강연회(세미나)
 2. 주제를 좁히는 토론회
 3. 집담회시 발표시간을 줄이고 토론 강화, 필요시 주제별 모듬 토론 도입

5) 강연회 (60명 참여)

- 일시: 11월 27일 오후 7시
- 장소: 상당도서관
- 강사: 오준호작가
- 발표주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 평가:

장소를 대학가 등에서 하는 방향 고려.

대중강연회 참가비를 받기보다 회원가입을 받는 게 좋을 듯.

인스타 등을 활용한 홍보방법 필요.

기본소득 의제 연대체 필요성 공감.

진보정당간 만남의 긍정적 자리.

이후 방향: 가) 세미나와 토론회, 나) 합의되는 공동정책 발표

6) 기본소득 ‘청년놀이터’

청년들과 함께 여가를 만든다.

청년뜨락5959 ‘청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과 연계 활동.

4. 총평

-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를 창립하고 청년모임인 ‘청년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기반을 만들었다.

- 지역 6개 진보정당들과 기본소득공동사업(집담회, 강연회)를 통해 충북기본소득연대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이후 기본소득실험을 현실화하고 충북지역 기본소득연대체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될 수 있게 해야 한다.